

지역개발전략의 유형 비교연구

신 등 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1960년대 말까지는 성장거점 개발전략이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지역개발학의 이론적 바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장거점전략은 지역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부터는 종전의 지역개발전략을 수정, 혹은 보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전략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다양한 지역개발전략의 성격과 이론적 기반, 그리고 그러한 전략을 집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두 가지 세트의 분석 틀을 제시한다. 즉, 하나는 영역적 개발전략과 기능적 개발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내발적 개발전략과 외발적 개발전략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개발전략들을 비교·검토하여 종전의 다양한 지역개발전략을 분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I. 문제의 제기

전통적으로는 지역개발의 이론, 정책 및 전략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성장거점전략이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성장거점전략에 대한 학자나 실무가들의 신봉이 크게 약화되었다(Arndt, 1983; Lo, 1978; Seers, 1969; 신등호, 1995). 즉,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균형 있게 개선시키고자 1950년대 이후부터 적용한 성장거점전략의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성장거점전략의 대안으로 많은 전략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농도개발론(Agropolitan Development, Friedmann & Douglass, 1975), 기초수요이론(ILO 1976, 박종화 외 2인, 1995), 적정기술개발론(Ellis 1981), 생활권 개발론(최양부, 이정환 1989), 농촌종합 개발론(Rondinelli, 1978), 소도읍 개발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WCED, 1986),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의 출현은 지역개발학 연구에 혼돈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의 협의와 대상,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의 수립과 결과평가를 위한 기준에도 많은 혼란이 있었다(Isard, 1987; Kalkulinski, 1987).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혼돈을 완화하여 지역개발학의 체계적인 연구와 효과적인 대학교육에 기여하고자 지역개발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써 '기능·영역적 개발', 그리고 혹은 '내·외발적 개발'이란 접근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강인원, 1997, 박경, 1998, 찰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지역개발전략 및 계획기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들의 특징과 이론적 기반 및 그들의 집행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틀(Framework)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하

향식 개발', 혹은 '기능·영역적 개발', 등이 그러한 맥락에서 소개되긴 하였으나 단편적인 축면이 많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에 근거하여 먼저 '기능·영역적 개발', 그리고 혹은 '내·외발적 개발'이란 접근방법들을 소개한다¹⁾. 그리고 그들이 기초하고 있는 이론적 기반과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발전목표, 집행수단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실 우리나라 계획학계에 있어서 이러한 분야를 논의할 때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은 개념상의 혼돈이다. 따라서 본 주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역개발학에 있어서 흔히 이용되는 용어의 개념부터 간단히 규정하고자 한다.

II. 개념규정

지역개발학은 고도의 응용과학으로써 그 이론과 정책, 그리고 기법들은 인접 사회과학에서 도입, 개발한 것이 주종을 이룬다. 따라서 지역개발학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론이 빈약하며 그로 인해 학문적 정통성에 대한 위기가 유발되고 있다. 즉, Paradigm, 이론, 정책, 전략, 기법 등의 용어들이 지역개발학의 이론과 실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끔 부정확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바, 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Paradigm'이란 '특정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하나로 묶어 놓은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를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구체화 한다면 지역개발의 Paradigm이란 지역개발이란 요소를 포함한 이론과 정책, 전략과 기법 등을 모두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세트란 것이다.

성장거점전략은 흔히 성장거점(개발)‘론’, 혹은 성장거점개발‘이론’, 성장거점개발‘정책’,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지만 염격히 말해서 그것은 수단이지 결증된 ‘이론’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지역의 현상을 설명하거나 장래를 예측하는데 이용되는 지식체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개발학과 관련하여 이론이라 한다면 지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에서 발달한, 지대론(Weber, 1929), 중실지 이론(Christaller, 1933), 산업입지론(Isard, 1956, 1960: 232-308 참조), 종속론(ECLA 1961, Frank, 1966), 신국제적 노동분업론(Frobel et al., 1980), 신축적 전문화론(Piore and Sabel, 1984), 등이 자주 언급된다.

앞에서 제시한 농도개발론, 기초수요이론, 적정기술개발론, 생활권 개발론, 능촌종합개발론, 소도읍개발론, 역시 비록 ‘론’이라 함으로써 이론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전략’이라 해야 할 것이다. ‘론’이라 불리우게 된 이유는 그런 수단들을 제시한 창시자들의 ‘주장’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전략의 특성과 기대효과 등에 관해 체계적 분석을 가능케하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전략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이라하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Actions)을 미리 결정해서 예정해 놓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략’과 유사한데, 전략은 정책보다 더 구체적으로 결정된 행동방식의 예정이다.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와 수단이 나타나 있어야 하고 행동의 우선

1) 내발적 개발은 가끔 ‘내생적(Endogenous)’ 개발이라고도 번역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발이 어디에서 출발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발적’이라 하기로 한다.

순위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Scheonberger, 1994a, 1994b).

지역개발학에 있어서의 기법이란 용어는 두가지 형태로 이용된다. 하나는 지역을 분화시키는 기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역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앞에서 언급한 ‘전략들’은 모두 전자에 해당되며, 토입·산출분석법, 비용·편익분석법, 기반·비기반 분석법, 임지상법, 등이 모두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신동호 1995 참조). 이 후자는 지역의 현상이나 그 현상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체계화된 방법으로써 정책이나 전략의 선택과 형성을 위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지역개발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와 같은 개념의 기초 위에 아래에서는 지역개발전략들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분석틀로 기능적 개발과 영역적 개발을 소개하고자 한다.

III. 기능적 개발과 영역적 개발

성장거점전략 이후에 나타난 지역개발전략의 대안들이 갖고 있는 기대목표와 질량수단,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보면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성장거점전략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고전파 경제원리 및 임자론의 주요 개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장거점전략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형태이며, 나머지 하나는 신고전파 경제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사회과학 전반에 유행하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론의 개발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를 기능적 개발(Functional Integration Approach), 후자를 영역적 개발(Territorial Development)라 하기로 한다(Friedmann and Weaver 1979). 기능적 개발과 영역적 개발전략의 구분 기준은 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보는 관점에 있다. 즉, 지역을 하나의 완결된 단위로 보고 확정된 구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니면 지역을 국가 또는 세계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보느냐하는 것이다. 전자는 영역적이라 할 수 있고 후자는 기능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기능적 개발이란 중심지, 혹은 성장거점이 주변지역에 대하여 수행하는 기능을 최대한 배려하여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농촌종합개발전략과 소도읍 개발론, 등이 있다. 한편 영역적 개발은 정치경제학 풍의 기본 개념을 지역개발전략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는 어떤 장소의 기능을 기준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리적 영역에 정주하는 주민들의 농토화 특성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기능적 개발과 대조된다.

즉, 전자는 신고전파 경제이론처럼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과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후자는 일정한 경계내의 주민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전자는 주로 능률성(Efficiency)를 중시한다면 후자는 형평성(Equity)를 중시하는 접근방식으로 이해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접근방법들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기반과 정책목표, 질량수준을 논의하기로 한다.

1. 기능적 개발

기능적 개발이라 함은 각 지역이 국토 전체의 공간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떤 지역의 기능을 간안해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지역의 개발을 유도한다. 그렇기

함으로서 그 지역은 물론 그의 주변 지역에까지 개발의 효과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기능적 개발이다. 이 전략은 D. A. Rondinelli가 도시를 주변 농촌의 중심지로 개발할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함께 개발시키려는 의도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기초는 중심지 이론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능적 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장거점전략이 실패한 원인은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통신시설과 같은 연결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해석했다. 따라서 개발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중심지, 즉 도시의 기술과 정보가 주변 지역, 즉 미개발지역으로 충분히 전파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인간 정주의 체계, 즉 중심지들의 연결망이 적합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고 개발을 유도하는 행정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Vernon W. Ruttan(1975)의 경우 미개발 농촌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을 교역의 중심지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Ruttan, 1975 : 9-16). 낙후지역의 주민들은 그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발된 지역의 자금, 새로운 기술, 정보 등의 개발요소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ondinelli and Ruddle(1977)은 캐나다와 말레이지아의 공간체계를 연구한 결과 저급한 연결체계 때문에 농촌, 교역의 중심지, 그리고 대도시를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Rondinelli and Ruddle, 1977 : 185-194).

기능적 개발의 기본전략은 개발의 효과를 개발된 도시에서 여타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기능적 개발론자들은 교역의 중심지를 개발하고 중심지간의 연결망을 발전시킴으로써 개발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 규모의 교역 중심지를 더 발굴해서 개발하고, 미개발 농촌지역에서 도시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지방의 행정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의 계획기능을 중 규모 교역의 중심지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능적 개발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의 저개발 국가 원조기구인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 의해서 널리 채택되었다. 이 개발전략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파키스탄, 그리고 필리핀 등 많은 개발도상국의 농촌 낙후지역의 개발전략으로 채택되곤 했다.

2. 영역적 개발

영역적 개발 역시 성장거점전략의 경험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영역적 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장거점개발이 실패한 주요 이유를 주변지역과 중심지간의 지배-종속관계로 파악하였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개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현상이라 주장했다. Myrdal이 제시한 '역류효과(Backwash Effect)'로 인해 성장거점은 계속적으로 주변부의 성장잠재력을 탈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는 선개발지역은 저개발지역의 잠재력을 흡수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이다. 영역적 개발의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낙후지역의 저발전 현상을 설명한다면, 그 지역의 생산력이 있는 젊은 층의 인구가 수도권 지역이나 다른 공업지역으로 계속 유출됨으로 인해 이 지역의 성장에 빛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역적 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은 또한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힘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힘까지를 향상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여기서 정치적인 힘이란 할은 지역내 집단간의 정치력, 혹은 협상능력은 물론 지역의 이해 집단들이 타 지역, 혹은 중앙의 정치집단들에 대항해서 발휘할 수 있는 정치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역적 개발론자들은 또한 석량, 주택, 의료시설, 교육시설, 교통·통신시설 및 여타의 집단적 수요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개발의 전제조건은 경제적 요소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Friedmann and Douglass(1975)는 영역적 개발의 한 모델로서 정치적 제휴(Political Coalition)를 근간으로 하는 개발전략으로 ‘농도적 개발(Agropolitan Development)’을 제시하였다. 이 농도개발전략은 개발권역의 지리적 공간을 주민에 의한 자족적이고 자활적인 관위, 즉 소규모 지역으로 설정하고, 각 지역은 외부의 지원없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계획하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역자원과 지역의 경제구조를 도농간 산업적 기능에 연결시켜 지역의 물질적,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농도개발론자들은 기능적 개발론자들과는 달리 낙후지역과 선개발지역의 관계에 대하여 ‘선택적 차단(Selective Closure)’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선개발자가 대개발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탈취하는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 양 지역간의 연결망(Linkages)를 부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Friedmann과 Weaver에 의하면 농도개발전략은 지역 단위에서 자족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란 것이다. 이는 낙후지역의 개발을 유도함에 있어서 ‘비교 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입각한 신고전파의 경제원리, 즉 자유무역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선택적 차단은 또한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개발논리를 부정하고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개발방식이다. 그것은 외부의 보조와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지역내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산활동의 유형을 다양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역적 개발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첫째, 그것은 주민의 경제적 여건 뿐만 아니라 복지수준 전체를 향상시킬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영역적 개발은 ‘내발적 개발(Endogenous Development)’과 유사하다. 둘째, 영역적 개발은 경제적 자원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자원까지를 개발의 요소로 간주한다. 셋째, 영역적 개발을 시행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영역적 개발은 위와 같은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단점도 없지 않다. 영역적 개발을 낙후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국과 같은 경우,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개발 수단을 채택할 만큼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개발도상국가들의 대부분의 낙후지역들은 영역적 개발을 시도하는데 필요한 기반, 즉 개발계획 수립기법이나 조직체, 그리고 물질적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영역적 개발을 구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낙후지역의 여건들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상 그러한 개발방식으로 지역 주민을 이끌 수 있는 능력있고 혁신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3. 두 접근방식의 비교

위에서 소개한 두가지 개발방식은 크게 지역발전의 목표, 집행수단 및 집행결과의 관점에서 서로 대조된다.

〈표 1〉 기능적, 영역적 개발의 비교

비교항목		기능적 개발	영역적 개발
발전목표	목적 만족 대상 결정자	물질적 풍요 지역의 기능(특성) 전문가	자족성(self-sufficiency) 대중의 수요 주민 대중
집행수단	이론적 기반 변화의 매개 경제체제	중심지 이론 기술·자본의 확산 교환가치	종속론 선택적 차단 교환 및 이용가치
기대효과	형성 측면 성장 측면 개발 동기 유발	덜 중요 중요 약	중요 덜 중요 강

1) 발전목표

먼저 발전목표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능적 개발은 경제성장을 통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한다. Rondinelli(1978)가 펠리핀의 농촌개발사업에 기능적 개발을 적용하면서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한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영역적 개발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역의 자족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자족적 능력을 배양한다 할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도 지역개발의 목표를 포함하는 것이다.

기능적 개발은 또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개발시킴에 초점을 두나, 영역적 개발은 주민의 수요가 무엇인가 파악하고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의 방향을 설정한다. 기능적 개발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자들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자들은 전문가이다. 지역주민은 단순히 이를 계획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뿐, 계획의 목표설정 과정이나 계획수립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역적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이 직접 계획과정은 물론 결과에 대한 평가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계획 전문가들은 계획 자체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유도한다.

2) 집행수단

기능적 개발전략은 중심지 이론에서 제시하는 교역의 중심지, 그리고 그들간의 연결망을

상적 구조, 혹은 표준적 모델로 조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영역적 개발에서는 저개발 지역과 선개발 지역간에 형성된 지배·종속관계를 타개하는 것을 주요 개발수단으로 채택한다. 양 접근 방법이 모두 지역간 연결망을 전제하고 있지만 기능적 개발은 그 연결망을 통해서 개발정보와 기술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는 반면, 영역적 개발은 미개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연결망을 일부 차단하고자 한다. 즉, 저개발지역의 생산력있는 노동력과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기능적 개발은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경제수단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경제에 국한하는 반면, 영역적 개발은 시장경제 뿐만 아니라 물물교환 경제 및 화폐적 수단이나 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은 경제부문도 포함한다. 이와 같이 공식 통계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경제 부문은 군대화 이전 전통적 사회에서 널리 발달되어 있었지만, 오늘날 선진국에서도 생산자, 소비자 조합 등의 운영형태 가운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3) 집행결과

집행결과의 관점에서 보면, 기능적 개발은 경제 '성장' 자체를 중시하고 지역내 주민 간 충간의 배분문제를 크게 문제삼지 않는 반면, 영역적 개발은 배분문제를 중시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보더라도 기능적 개발은 비록 '성장'을 중시하지만 그에 대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기능적 개발과는 달리 영역적 개발방식은 경제적 자원을 물론 지역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대해 가능성성이 더 큰 개발전략이라 보여진다.

또한 개발의 등기유발이란 측면에서 보면, 기능적 개발은 외부의 경제적 지원과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개발동기도 위축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외부지원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단될 수도 있다. 외부지원을 동원하는 자들은 흔히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 단기적 성과를 성취하는 것은 개발의 궁극적 목표달성과 무관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역적 개발은 내부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외부의 결정이 지역주민의 개발동기를 침체시키는 경향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간접화 않지만 일단 영역적 개발에 의해 개발동기가 유발된 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IV. 외발적 개발과 내발적 개발

지역개발을 위한 접근방식으로써 외발적 개발, 내발적 개발이라 하는 것은 개발의 이론적 틀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즉, 지역개발의 주체가 지역 내부에 있는가, 혹은 외부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질적 낙후지역들은 경제적 일자 조건이란 측면에서 볼 때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불리한 여건하에 있다. 따라서 성장 위주의 전통적 경제정책의 관점에 입각한다면 외부의 지원 없이는 도시로 이탈하는 인구이동 경향을 완화하고 지방에 인구를 정착시키는 한편, 낙후지역을 자생력있는 지역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와 같이 주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접근방식을 '외발적 개발'이라

하고, 지역 내부의 인력과 자본에 의존하여 지역개발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을 ‘내발적 개발’이라 한다. 즉, 외발적 개발은 외부의 대규모 자본가 혹은 기업가가 개발의 주체가 되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부로부터 대규모 산업시설을 가능한 한 많이 유치함으로써 지역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예: 공업단지의 설정, 첨단산업의 유치 등). 그러나 내발적 개발은 지역 주민과 지역자본가가 주체가 되고 상급 행정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외부의 자본가의 협조를 얻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위의 두 가지를 동시에 구사하는 접근방식을 ‘종합적 개발전략’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외발적, 내발적 개발을 병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흔히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고 또 그 방식들의 성격을 염려해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소한 학문적으로는 그 두 개념들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아래에서는 이를 두 개발 전략의 이론적 기초, 기대목표, 절행수단, 등을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1. 외발적 개발

외발적 개발론자들은 지역발전을 취업기회의 창출, 소득향상, 그리고 기업활동의 육성 등과 동일시 한다. 이 때 해당되는 지역은 단순히 하나의 장소, 즉 기업과 근로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취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지만, 북미에서는 광산개발, 철도건설, 대학유치, 행정기관이나 다른 정부기관, 설치어는 교도소 등을 유치하는 것도 외발적 개발의 한 전략으로 채택되곤 했다. 이 전략을 채택하는 개발업자, 즉 공무원이나 지역유치들은 지역내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입지적 장점을 강조하면서 외부에서 자본을 지역내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예를 들자면, 기업에게는 이윤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에게는 유권자들의 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들은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잠재적 투자가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부부문과 긴밀히 연계해서 자기 지역의 투자조건을 유리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가끔 기업을 새로이 유치하기 위해 행정기관도 그런 활동에 두분별할 정도로 참여하는데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즉,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없이, 또 투자자의 이윤만 보장해주고 그 투자가의 기업활동이 지역의 생산 및 생활여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지역들이 외발적 개발에 의존한다면 지역간 투자가를 유치하는 경쟁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각 지역이 경쟁력있는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을 쌉 값으로 제공하고, 세금부담을 줄이고,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Henderson, 1992 : 61). 준비된 상품 보다는 참가하는 선수가 많은 경기에서는 상품을 못터는 선수도 있다는 것은 훗연적 사실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을산이나 구미와 같이 어떠한 연유에서든 정책적 지원과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독포지역, 영호남 경계지역, 강원도 산간지역 등과 같이 외부투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2. 내발적 개발

위에서 설명한 외발적 개발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를 취하면서 지역사회의 협동 접근하는 것이 내발적 개발이다. 외발적 개발의 문제점에 브라 잘 대응하기 위해 균형화 외부투자 유인책을 강구하는 지역개발론자들이 있었던 반면, ‘경제성장’이란 목표자체를 트완하거나 대체하기 시작한 논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경제성장의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바, 이를 내발적 개발이라 칭할 수가 있겠는데, 이는 ‘성장’보다 ‘발전’을 더 중시하는 개념이다.

발전은 성장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응호하는 자들은 지역사회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맷가, 즉 경제의 주기적 불안정, 외지인 소유권의 증대, 그리고 천연자원의 고갈 등의 맷가를 치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복지국가의 개념이 출현하기 전에 정책결정자들은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최선의 방식으로 생각했다 (Boothroyd and Davis, 1992). 복지국가는 지역의 경제가 파괴해졌더라도 전출하는 지역주민을 지역에 둑어 두려고 했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1950년대 이전에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주민들은 자족적이거나 미개발된 산야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 부문이 그들을 망쳐놓은 상태에서 정부가 제공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지역을 정정된 성장거점에다 실업자 보험, 공공보조자금, 농업보조, 회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조하였다.

하향식 지원은 주민을 지방에 안착시키는데 다소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지역의 자기존재기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향식 지원방식을 지원 받는 기간동안 지역사회들은 이미 지역자원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지역의 장래가 기술관료들과 외지인의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된 것이다. 복지국가란 개념의 도입이래 지방은 생산의 장이라기 보다는 생존의 장으로 화한 한편, 스스로 장래를 계획하는 기능은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다.

3. 두 접근방식의 비교

1) 이론적 기초

외발적 개발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지역경제는 흐름교환의 총합이다. 시장거래를 벗어나 창출된 재화와 용역은 지역경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장외에서 발생하는 생산활동은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표 2〉 내·외발적 개발의 비교

비교 항목		외발적 개발	내발적 개발
발전목표	변화의 방향 지역경제의 성격 목표달성을 수단	경제성장 양적 측면 강조 지역의 생산력 향상	사회발전 질적 측면 강조 주민의 自決能力 향상
집행수단	변화의 원동력 변화의 수단 경제성장의 수단	외부 경제적 요소 수출증대	내부 사회적, 인간적 요소 내수증대
기대효과	변화에의 적응력 성과의 배분 잠재력 개발효과	약 불균형적 약	강 균형적 강

둘째, 고용기회의 증대는 지역경제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고용기회의 증대는 고소득과 재산가치의 증식, 그리고 조세원의 증대로 연결된다. 고용증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비용은 부차적인 것으로 본다.

셋째,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화폐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외로 수출되는 재화와 용역을 가능한 한 증대시켜야 하고 외부의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의 내부경제는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전제한다. 고용증대로 인한 혜택은 지역사회로 흘고 끝 확산된다는 가정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보다 나은 지역경제를 인도하는 기능은 없다고 본다(Boothroyd and Davis, 1992).

이와 같은 외발적 개발은 기업과 지역의 각종 조직이 협력적일 때에 비로소 효과적인 경쟁 자로 성장할 수 있게된다. 이것은 단지 '지역성장'이란 의문스런 목표 아래서만 가능하다. 여타의 발전목표, 즉 안정성, 지속성, 독립성, 평등성, 그리고 균형생활의 질과 같은 목표는 고려되지 않는다.

내발적 개발의 경우, 지역경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단위 전부는 아니다. 즉, 지역에서 운용되는, 그리고 주민의 복지에 기여하는 화폐적 교환수단이 아닌 경제도 포함된다고 전제한다. 비록 화폐경제가 주된 지역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모든 지방이 비화폐 부문을 통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발전의 주된 목적은 지역경제의 장·단기적 안정을 위해 지역내 관리 및 청분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경제적 성장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는 그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달려있다. 만약 우리나라의 저개발지역들과 같이 지역생산과 소득이 월등히 낮다면 성장이 필요한 것이고, 울산이나 포항처럼 이미 지역생산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면 경제성장을 가장 우선적인 발전목표로 선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안정성, 지속성, 그리고 계층간 균형과 같은 발전 목표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내발적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로 화폐가 유입되는 것은 주민 소유권의 확대, 외지인 소유인 경우는 소유권의 다변화, 지역자원 관리권 확대, 수출의 다변화 및 수입대체의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내부구조가 비교우위론적 경제원리에 의해 끌려가도록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지역개발은 지역주민이 지역경제를 신중히 재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2) 집행수단

외발적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할 상황이 있다. 즉, 고질적으로 저성장을 지속하는 지역들, 그리고 안정적이고 공평한 경제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발적개발에 의한 소득의 총량적 성장이 필수적일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안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외발적 개발은 그 자체가 소지한 결함 때문에 부정되어야 한다. 즉, 성장이 최대의 善意 경우는 흔히 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성장축진이 적절히 필요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지역들은 성장에 예기치 않은 장벽에 부딪칠 수도 있으며, 새로 진입하는 투자거나 고객들에 대한 제로 셀 계약은 가장 협약하다. 어떤 지역이 이러한 전략을 채택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1995년 우리나라에서 삼성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 부산시와 대구시가 서로 경쟁한 사례라든가, 1994년 제2의 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해 경주시와 부산시가 경쟁한 것들을 그 예로 제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실 지역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의 규모나 입지조건이 양호하거나 요향히도 상급정부의 지원을 획득하는데 성공한 지역이 유치경쟁에서 이기게 된다. 그래서 지역간 양보와 협조 없이는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의 경제성장이 가장 잘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내발적 개발의 집행체계는 구조적 변화를 추구한다. 첫째, 지역 외부로부터 誘引되는 投資을 다변화시킨다. 비록 외부인 소유라 하더라도 몇개의 소규모 업체가 하나의 거대한 업체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 지역이 하나의 업체 소유인 경우이다.

둘째, 지역내 소유권을 중대시킴으로써 외지인 소유권을 축소시켜 낸다. 이는 지역주민이 개인으로써, 혹은 지역개발 사업단 등 단체를 형성해서 위기에 처한 외지인 소유의 업체를 인수한다든가, 또 외지인 소유의 업체를 설립하여 지역에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예로써 울산의 현대그룹의 일부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울산시는 지역내 소재 기업체의 업주들의 현주소를 울산시로 이전할 것을 독려하여 이를 성취시킨 예가 있다. 또한 1994년부터 발효된 지역균형개발법은 주민, 사기업 및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협력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략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지역자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결정권을 중대시킴으로써 외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서구세계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제도로서 정부가 지역단위의 공동체와 함께 별채권이나 어업권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관리제(Comanagement)’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서부 카나다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원, 산림자원 등을 관리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넷째, 생산호소나 생산시장을 다변화시킴으로서 디가공 자원을 역외로 수출되는 것을 줄인다. 이것은 지역경제가 단일 사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지역에 특히 필요한 전략이다. 역외에서 공급받는 수입물을 지역 생산물로 대체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산물로 대체 가능한 원료, 혹은 중간생산품을 지역산품으로 대체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비화폐적 교환수단을 창출함으로서 화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그렇게 함으로서 국가 전체의 금융정책, 인플레이션, 혹은 경기변동에 따른 대폭적 실업상태로 부터 지역사회를 보호받을 수 있다. 지역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교환수단, 즉 어떤 지방에서 그 지방에서 약속된 주민들 사이에만 통할 수 있는 지방화폐를 고안하는 것도 한 특수한 예가 될 수 있겠다.

3) 기대효과

외발적 개발에 의존하는 북미의 지역사회들을 연구한 S. E. Perry는 투자유치에의 성공이 바로 지역의 혜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외부의 투자가를 유치하는데 비록 성공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기대한 바의 혜택을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했다(Perry, 1989). 외발적 개발을 추구하여 새로운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던 혜택을 잃는 맷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흔히 있다는 것이다. 즉,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는 맷가로 기준에 있던 1차 산업분야의 소득과 고용의 기회를 잃게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울산이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30년동안 급속하고 무계획적인 공업화로 울산지방에 1960년대 이전에 존재하던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고용과 소득은 물론, 청결한 자연환경을 심각할 정도로 상실하였다.

선진국의 경우 외발적 개발을 위주로 한 개발전략은 진정한 지역개발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한다. 대규모 공장, 대단위 개발사업, 혹은 정부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야 하는 바, 그러한 경쟁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던 바에 비해 실제로 얻는 바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Luke, Ventress, Reed, 1988).

L. C. Thurow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획득된 공장들은 불경기가 오면 제일 먼저 폐산된다고 지적했다(Thurew, 1989). 북미의 경우 오히려 소규모 기업이 창출하는 고용기회가 염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소한 고용기회란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경남 서북부 지방과 같이 거의 모든 산업입지 조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을련지는 의문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부닥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지방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게 되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외발적 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세련된 방법을 고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노력은 가능한 모든 사회부문과 공적부문을 동원하여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기회를 모색하며, 광범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외발적 개발에 의존하는 지역개발론자들은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내 기존 기업의 확장과 생산성의 향상도 유도하려고 한다. 북미 국가들의 경우 공공부문의 지원방식은 정부보조 및 융자, 기업가와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창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가동, 기술개발 정보제공, 사회 간접자본 확충 및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표현되었다(Boothroyd and

Davis, 1992). 최근에는 정부가 사적지를 새로 단장하고 야외 시설들을 정비하거나, 의료시설을 확충하며, 공해를 감소시키고 사회보장시설을 종래시침으로써 구매자·판매자, 관광객, 은퇴자 및 투자가를 유치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해 지방과 중앙의 경제전문가들은 지역의 천연자원의 홍폐 및 통신기술의 발달 등 새로운 경제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즉, 통신기술의 발달은 자본이 더 쉽고 간단하게 장거리 이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고, 또 가능적으로 서로 윤관된 산업시설이라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에서도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투자가의 의사결정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들의 영향력이 충전보다 더 떨어져 까지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위기하에서 지역문제를 취급하는 방향은 다양하게 대두되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데로 경제성장 계획으로 대처했다. 이들은 시장에다 좀 더 좋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도색하게 되었고 역외 수출경제, 고용, 수입대체 등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새로운 불안정의 요소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듯 지역들은 단순히 경제성장을 꾀하기 보다는 장·단기적 의존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도덕적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이후 전개가 성장관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구조적 변화를 통해 각 지역 스스로의 통치기능을 회복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V. 결 론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현재 지역개발학계는 학문적 정통성 위기로 고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개발학 고유의 이론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학문분야의 이론화 기법을 드일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이렇게 도입된 이론과 기법이 많은데다 1970년 이후 다양한 개발전략들이 새로이 제안되어 이를간의 혼돈이 심하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하향식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써 상향식 개발, 혹은 내발적 개발전략의 유용성에 대한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강인원, 1997, 박경, 1998, 조명래, 1984 출조).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개발전략들을 비교적 간단히 비교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기능적 개발과 영역적 개발, 그리고 의발적 개발과 의발적 개발이란 접근방법을 소개하고 그들이 기초하고 있는 이론적 기초, 그리고 절행수단과 기대효과에 있어서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사실 소개된 두가지 세트의 접근방법들은 상호 유사한 측면과 충돌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지역개발전략들이 각기 추구하고 있는 발전목표, 집행수단,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는데 이승될 수 있는 유용한 분석틀이라 판단된다. 즉, 일정 지역의 개발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고, 그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이며, 집행의 결과로 산출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주장은 소개된 분석틀을 개별 지역개발전략의 집행과 결과평가에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검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그 유용성이 검증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장인원. (1997). 내생적 개발과 지역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 지역사회개발 학회지」, 제22집 제2호, pp. 7-23.
- 박 경. (1998). 지역개발전략으로서 내발전 발전론: 일본의 동향과 과제, 한국 지역개발학회 하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
- 김영모. (1992). 「지역개발학개론」. 서울:녹원출판사.
- 김학로·강성철·신동호. (1997). 성장거점 전략의 과급효과에 대한 재평가: 경상남도 울산지역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 지역개발학회지」, 제9권 제2호 pp. 125-138.
- 문병집. (1992). 「지역사회개발론」. 서울:법문사.
- 박수영. (1992). 「서구도시개발론」. 서울:법문사.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1995). 「지역개발론」. 서울:박영사.
- 신동호. (1995). 지역계획의 학문적 전통. 「국토계획」, 제30권 제4호, pp. 5-19.
- 최양부·이정환. (1989). 「산업사회와 농촌발전전략」. 서울: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명찬. (1995). 「지역개발론」. 서울:법문사.
- 조명래. (1984). 대안적 방식으로서의 상향적 개발, 「지방의 재발견」. 서울:민음사.

2. 외국문헌

- Arndt, H. W. (1983). The Trickle-down Myth.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1(1): 123-152.
- Boothroyd, Peter and H. Craig Davis. (1993).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Three Approaches.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12: 230-240.
- Davis, H. C. and L. E. Davi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Wealth Creation within the Informal Economy. *Plan Canada* 27: 238-248.
-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ECLA). (1961).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United Nations, Santiago, Chile.
- Ellis, Gene. (1981). Development Planning and Appropriate Technology: A Dilemma and a Proposal, *World Development* 9: 251-262.
- Frank, Andre Gunder. (1966).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Monthly Review* 18(4): 17-31.
- Friedmann, John. (1979). Basic Needs, Agropolitan Development, and Planning from Below. *World Development* 7: 607-18.
- Friedmann, John. (1981). The Active Community: Toward a Political-territorial Framework for Rural Development in Asi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9: 235-261.
- Friedmann, J. and M. Douglass. (1975). Agropolitan Development: Towards

- New Strategy for Regional Planning.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n Industrialization Strategies and the Growth Pole Approach to Regional Planning and Development. Nagoya, Japan: UNCRD.
- Friedmann, John and Clyde Weaver. (1979). *Territory and Function: The Evolution of Regional Planning*. Berkeley, CA: Univ. of California Press.
- Fröbel, Folker; Jürgen Heinrichs; and Otto Kreye. (1980).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Structural Unemployment in Industrialised Countries and Industri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London: Cambridge Univ.
- Henderson, H. (1992). Making Sense of Economics. *Common Ground* 31(8): 61-61.
- International Labor Office(ILO). (1976). *Employment, Growth, and Basic Needs*. Geneva: ILO.
- Isard, W. (1956). *Location and Space Economy*. Cambridge, Mass.: MIT Press.
- Isard, Walter. (1987). Regional Science: Retrospect and Prospect: An Interview with Walter Isard,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Review* 112: 153-158.
- Kuklinski, Antoni. (1987). Regional Policies: Experiences and Prospect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Review* 173-186.
- Lösch, August. (1954). *The Economics of Location*. New Haven, Conn.: Yale Univ. Press.
- Luke, J. S.; C. Ventriss; B. J. Reed; and C. M. Reed. (1988). *Managing Economic Development* San Francisco, California: Jossey-Bass Publishers.
- Lo, Fu-chen and Kamal Salih. (1978). Growth Poles and Regional Policy in Open Dualistic Economies: Western theory and Asian Reality, In *Growth Pole Strategy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Edited by Fu-chen Lo and Kamal Salih. pp. 243-69.
- Myrdal, Gunnar. (1957).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Duckworth.
- Perry, S. E. (1989). *The Community as a Base for Regional Development*. Local Development Paper No. 211. Ottawa, Ontario: Economic Council of Canada.
- Piore, M. and C. Sabel.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s*. New York: Basic Books.
- Rondinelli, Dennis A. (1978). Bicol River Basin: Urban Functions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Summary and Evaluation for Office of Urban Development,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D.C.
- Rondinelli, Dennis A. and Kenneth Ruddle. (1977). Integrating Spatial

- Development. *Ekistics* 257: 185-94.
- Ruttan, Vernon W. (1975).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grammes: A Skept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17: 9-16.
- Schoenberger, Erica. (1994a). Corporate Strategy and Corporate Strategists: Power, Identity, and Knowledge within the Firm.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 435-451
- Schoenberger, Erica. (1994b). What is Strategic About Strateg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6: 1010-1012.
- Seers, Dudley. (1969). The Meaning of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Review* 11:2-6.
- Thurew, L. C. (1989). Regional Transformation and the Service Activities," in *Deindustri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Transformation*, eds., L. C. Lodwin and H. Sazanami. Boston, Mass: Unwin Hyman.
- Weber, Alfred. (1929). *Theory of the Location of Industry*, translated by C. Friedrich.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1987). *Our Common Future*. New York: Oxford Univ. Press.

신동호: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박사학위(논문: Impacts of Industrialization on the Quality of Life in Korea)를 취득한 후, 경남개발연구원에서 1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역분석, 산업정책이며 현재의 관심분야는 첨단산업단지의 파급효과이다. 저서로는 *Asia's Environmental Crisis* (Colo, Boulder: Westview Press, 1993, edited by Michael Horward)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Governing Inter-regional Conflicts: the Planning Approach to the Extended Metropolitan Pusan, Korea" 및 "한국과 카나다의 첨단산업단지 비교연구," *극동계획* 제33권 제3호(1998)이 있다.